

보도 일시	2023. 3. 7.(화) 09:00	배포 일시	2023. 3. 7.(화) 09:00
담당 부서	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	책임자	과장 신지원 (044-203-2381)
		담당자	사무관 이지은 (044-203-2378)

K-팝 해외진출 촉진방안, 장르별 수출전략 논의 첫 테이블에

- 3. 7. '제2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' 개최..K-팝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
- 음악 분야를 시작으로 콘텐츠 장르별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본격 논의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3월 7일(화),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콘진원)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'제2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'를 열어 K-팝 수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진출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.

문체부는 콘텐츠 현장과 소통해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하고자 지난 2월 17일에 '콘텐츠 수출대책회의'를 출범한 바 있다. 이번 2차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(2. 23.)에서 박보균 장관이 'K-콘텐츠 수출전략'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수출 현장을 콘텐츠 장르별로 점검하는 첫 자리이기도 하다. 장르별 점검의 첫 번째 대상은 K-팝으로, 음악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
K-팝 수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 발굴 추진

90년대 말 아시아권 국가들의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시작된 한류는 이후 아이돌 가수 중심의 대중음악으로 확산됐다. 이후 K-팝은 최근까지 방탄소년단(BTS), 블랙핑크 등을 필두로 K-콘텐츠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.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악산업 수출액은 2021년 회복세를 보이며, 전년 대비 14.1% 증가한 7억 7,527만 달러를 기록했다.

<음악산업 수출액 현황(단위: 천 달러)>

구분	2017년	2019년	2019년	2020년	2021년
수출액	512,580	564,236	756,198	679,633	775,274

이번 회의에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연예기획사 티오피미디어, 스페이스 보헤미안, 이고그룹과 K-팝 엔터테인먼트 교육기관인 월드케이팝센터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,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. 참석자들은 해외 쇼케이스 개최, 음악 전문마켓 참가, ‘서울국제뮤직페어(뮤콘)’ 참가 등 기존 해외 진출 지원책에 더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.

전병극 차관은 “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.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, K-콘텐츠는 명실상부한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가 되었다.”라며, “음악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게임, 방송, 웹툰 등 장르별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K-콘텐츠가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	책임자	과장 신지원 (044-203-2381)
		담당자	사무관 이지은 (044-203-2378)
<공동>	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	책임자	과장 안미란 (044-203-2461)
		담당자	사무관 이우선 (044-203-2464)

